◀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찡한 모녀의 리어카*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 내 앞을 어떤 할머니 같은 아줌마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손수레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태우고 도로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동네분들 한테 물어보니,,,,,, 그 아줌마는 자신의 어머니인 "할머니"를 그 작은 손수레에 태우고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풍인지, 치매인지가 왔지만 가난한 탓에 입원은 꿈도 못 꾸고, 병원에 가기는 해야하는데 택시비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따님이신 그 아주머니께서 3 km 정도의 길을 손수레에 태워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가가 할머니 사정을 묻자 따님의 말이

"다행이 풍인지, 치매인지는 어머니 병이 좋아져서, 날라 갈 것 같다" 는 말에 참았던 눈물을 돌아서서 훔쳤습니다. -어느 사진작가-

◀추억 생각하기▶ 이명래 고약

노란 기름종이에 펴 종기에 붙이면 누런 고름이 쑥 빠져나오던 특효약. 그때는 웬 종기가 자주 나던지요. 변변한 약이 없었던 그때에 부채표 까스활명수, 안티프라민과 함께 절대 필요한 상비약이였습니다. 종기가 나도 고약을 붙일 수 없는 유일한 곳은 눈에 난 "다래끼"였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13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3월30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주일학교 교사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은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유언을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구요." 라고 어린 군인은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어린 군인은 무슨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숨을 헐떡이면서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구요.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세요."

군목은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여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유언을 들으며 결심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휴대폰의 편리함
아무데서나 응답할 수
있더구나
하나님 응답은
말씀을 통해 온다
성경을 갖고 다니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길에 침을 뱉지 마라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길에 침을 뱉는 것을 보면
누더기 입은 사람처럼
보이더구나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8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0(빌 4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 송 Hymn	466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재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 23:50-5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제 무덤에 누우소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5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유정희 집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3.4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30	**이재영**	**김 인 희**	**유성희(다슬.다은)**	**박태원.서동완**
6	정덕수	김 종 우	차명은.안희진	사카시다 키쿠오.박일영
13	정희자	김 진 근		원성호.유종옥
20	지찬영	마 경 춘	고성일.김봉희	윤형권.이광희
27	최재학	민 광 호	한정옥(규정.규형)	이근평.이재윤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7시

☆부활의 4월을 머리앞에 둔 3월의 마지막입니다. 가을로 접는 남십자성 아래서 보다는 잠자던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는 고국에서의 4월이 부활과 더 어울려 보입니다. 행복한 새 달이 되십시오.

1.교우소식

*양경배 집사 모친상:지난 26일 별세.28일 장례엄수
*이사:이일원 성도. ☎521-5928 ✉45 Greenbank Rd. St Jhon.
*이사:신영숙 집사.신미숙 성도. ☎522-0027 ✉ 2/34 Cotler Rd. Remuera

2.'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
*한자한자 써 가다 보면 읽을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 몇몇 부분이 비어있어 원하시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문의:박병민 집사)

3.Tracking Club: <담당> 김반석 집사
*숲과 산의 Fresh Air를 마시며 걷다가 샘물 발견하면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기쁨을 누려보시지 않으시렵니까?

4.제1남여선교회 정기회의. 예배 후 모입니다(홀수달)

5.정기당회:화요일(1일) 저녁 7:30

6.제2남선교회 기도모임(예고): 4월11일(금) 저녁 8:00. 교회

◀착한 시인▶ 칫 솔

연애할 때, 그녀네 집 화장실에서
몰래 그녀 칫솔로 이를 닦다
그 황홀함, 아무도 모르라고

어제, 칫솔을 변기에 떨어뜨리다
잠시동안
아내 칫솔과 변기를 번갈아 보다가
변기 속 칫솔 꺼내 씻어내고 이빨 닦다

아
서글픈 변심이여

변기속에 빠진 칫솔을 꺼내 쓴 적이 두 번있습니다. 한번은 군대에서 한번은 엊그제.
군대야 그렀다손 치더라도 아내 칫솔보다 변기속의 칫솔에 손이 갈 정도로 변해버린 마음에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내가 먹던 젓가락을 닦지도 않고 먹고있는 마음은 남아있습니다.